

정보통신시장의 개방과 데이터베이스

Information Market Open and Korean Database Industry

김중문
삼보교육미디어 대표이사
Kim, Jong-moon./President of Trigem
Education and Media.

강자와 약자

정보통신업계의 UN
이라고 할 수 있는
ITU 즉, 국제전기통신
연합이라는 것이 있다.
지난해 가을, 이 기구
의 최고의결기관이라

고 할 수 있는 ITU 전권위원회의 동경회의에
서 우리는 강자와 약자,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
면 강자와 강자가 되려고 하는자의 첨예한 대
결을 보았다. 그 내용은 ITU내의 상설기구로
써의 세계전기통신정책회의를 설치하자는 일
본의 제안과 그 제안에 제동을 건 미국간의
대립이다. 멀티미디어가 세계적인 추세가되고
있으며 21세기 약 3조 5천억불이상의 거대한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
는 것을 감안할 때 세계경제의 주도권을 양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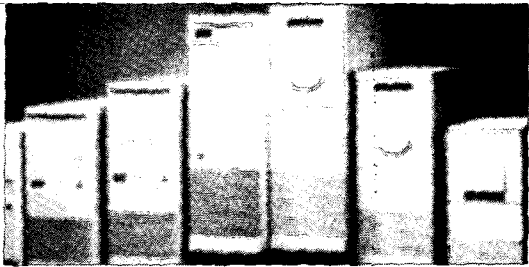


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대립은 어쩌면 자연
스러운 것일 수 밖에 없으며 이를 관망하며
나름대로의 이권을 모색중인 유럽연합(EU)
역할에 비해 우리나라의 입장은 과연 무엇인
가를 생각하여보면 깊은 회의에 빠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1970년대 이후 전세계의 가전시장에서 성공
을 거둔 후 80년대에 들어와서는 자동차 시장
을 석권함으로써 세계경제의 확고한 축을 형
성해온 일본의 관점에서 보면 멀티미디어를

근간으로하는 미래 세계경제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멀티미디어를 널리 보급시킬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각국 간의 정책의 일치가 불가피하므로 ITU를 활용하여 그 기구내에 정보통신정책회의를 신설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물론 이를 위해 일본 우정성내의 정보통신 관련부서가 이 기구내의 중심적 역할을 함으로서 이 분야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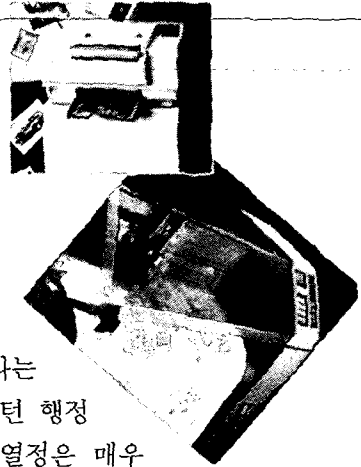
일본정부의 이와 같은 노력은 세계의 경제대국으로서 다가올 미래경제 사회의 변화를 미리 예견한 가운데 국가의 정책방향을 변화



의 흐름에 일치시키는 매우 기민한 적응으로서 어떻게 보면 일본정부의 정책적 대응의 절박성을 시사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반면 미국은 전통적인 미국의 외교정책 노선에 따라 미국의 세계전략에 부합하는 형태로 ITU를 운영하려는 목적으로 일단 일본의 주도적 역할에는 동조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미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는 정보통신이야말로 미국산업이 재생할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1993년 가을 NII(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구상에 이어 작년도에는 부에노스아이레스 ITU회의에서 GII(Global Information Infrastructure)를 발표하면서 이 분야의 주도권을 확보하는데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의 국가경쟁력이 1994년 상반기 이후 점

진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업계에서는 이와 같은 미국 경기의 회복세가 단순한 경기의 반복적 주기에 따른 것이 아니고 지난 '70년대 후반 이후 미국내 기업의 전산화 추진에의 결과에 따른 정보화의 산물이라는 분석이 대두함에 따라 클린턴 행정부가 정보화 사업에 쏟은 열정은 매우 대단한 것이다.



영원히 강자의 위치를 고수하려는 미국의 노력과 미래 정보화 사회의 또 다른 강자로 군림하고자 하는 일본의 추격은 한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이 바라보고만 있기에는 너무도 가슴아픈 현실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정보 라운드 (Information Round)

우루과이라운드란 말이 우리 국민들의 가슴속에 아픈 상처를 남겨 준 것이 바로 잇그제인데 금년 초 벽두부터 또 다른 압력의 징후 즉 정보 라운드(Information Round)가 한국 시장을 응시하고 있다. 이 정보 라운드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캐나다 라운드-도쿄 라운드-우루과이 라운드-그린 라운드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변화처럼 아직 국제무대에서 구체화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흐름을 볼 때 그 압력의 가능성이 매우 심대하게 다가올 것으로 예측되는 것이다.

개방에 관하여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늘 상반된 견해가 공존하기 마련이다. 대표적인 예가 19세기 말 일본, 미국, 러시아 그리고 유럽등지로 부터 불어닥친 개방의 압력에

대한 이씨 조선왕조의 대응은 결과론적으로 대원군의 쇄국정책으로 일관하면서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고립된 약소국으로 전락하여 종래에는 식민지의 운명을 맞는 비운을 안겨다 준 것이었다. 그로부터 백년후 20세기 말엽 즉 1980년대 중반 또다시 한반도를 향해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 개방의 압력은 특히 정보시장에서 더욱더 절박하게 우리의 현실을 깨닫게 하고 있다. 지난호에서 언급하였던 인텔사의 아시아 태평양 그룹 담당 사장인 데이비드 슈리글리의 충고 역시 바로 우리나라의 정보시장의 개방에 관한 것으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개방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바로 이러한 지적으로 인하여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정보화와 개방의 문제가 단순한 외부의 일로만 간과할 것이 아니며 변화의 큰 흐름과 우리의 생활이라는 관점에서 다루어야 할 이슈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을 두고한 많은 표현 가운데 하나 기억이 남는 말이 있다. From Mystery to Mastery 라는 표현이었다. 인터넷에 접속된 컴퓨터에 너무나도 방대한 양의 정보가 산재해 있어 실제로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음과 동시에 일단 적극적으로 나서기만 하면 어떠한 정보도 다 구할 수 있는 만능해결사라는 의미를 동시에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정보의 거의 대다수는 미국의 정보이며 미국이 인터넷의 탄생으로부터 최근의 발전에 이르는 거의 모든 부분을 주도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업계의 정보에 따르면 미국이 각국의 공공정보를 공개하라는 강도 높은 압력을 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또한 인터넷을 통한 정보교류도 언젠가는 일정한 제한을 두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가지

지 않을 수 없다. 즉 무제한 확대의 일로를 걷고 있는 인터넷이 전세계 모든 인류의 친근한 벗이자 생활의 일부분이 될때까지는 전혀 제한을 가하지 않다가 언젠가 인류가 그 영향권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운 시점에 제한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 그것은 마치 과거 식민지 정책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는 말이다.

그러한 상황을 목전에 두고 우리는 우리의 생존과 발전 더 나아가서는 21세기형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어떠한 전략으로 정보화 시대를 살아야 하는 것일까?

미국의 정보식민지 정책

클린턴 미국대통령과 고어 부통령은 그들이 취임하기 이전 당선자 시절인 1992년 12월 300여명의 기업인 총수를 모아놓고 정보고속도로 구상을 설명하였다. 이른바 "리틀록 경제서미트"란 것이었다. 그 후 공식적으로 신정부가 출범하면서는 21C Infrastructure Project 를 입안함과 동시에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 산업 경쟁력 강화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국정보통신 산업계의 목을 쥐고 있었던 반독점금지법도 해제하고 기업과 정부가 협력하여 한 방향을 지향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이어서 미국 정부는 국내의 정보통신기반을 공고히 하는 전략적 사업의 하나로 국가정보기반(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을 구축하여 소위 정보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물론 최근에는 이를 세계정보기반(Global Information Infrastructure)으로 확대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미 널리 알려진 조사자료이기는 하나 지난해 3/4분기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브스지의 보고에 따르면 미국 경제는 1994년 확실한 회

북극면에 접어들어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그러한 성장의 요인을 단순한 경기회복으로 보기 보다는 1970년대 이후 미국의 기업에서 업무 전산화를 위해 투자한 막대한 인프라스트럭처의 구조가 비로소 진가를 발휘하여 미국기업의 경쟁력을 강화 시켰고 그것을 원동력으로 하여 경기회복을 이루고 있다고 분석한 적이 있다.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의 역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최대의 역점을 고용의 창출에 두고 있다.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많은 국민들에게 경제적 가치를 안겨다 주는 것이 좋은 정치라는 얘기다. 그런데 최근들어 미국의 클린턴 정부에서는 향후 미래 사회의 경제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정보(Information)으로 보고 정보경제 사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는 정보의 효율적, 경제적 유통을 가장 중요한 성공요소의 하나로 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미국의 정보고속도로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디지털시대의 세계경제의 주도권이 미국의 손에 쥐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은 다가오고 있는 디지털 혁명의 시대에 정보고속도로를 타고 미국의 상품이 전세계에 산재한 컴퓨터를 이용하여 통신망 사이를 중형무진으로 날아다닐 것을 희망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회장은 윈도우 95 및 그와 연계된 통신용 소프트웨어의 보급으로 전세계 가정에 모든 정보를 전달하고 그 정보의 유통과정 또는 그 정보를 활용한 각종 상거래 행위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매출기반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다. 이것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제조시설과 생산기술을 경쟁력의 근간으로 하는 20세기형 경제구조를 정보와 정보유통체계

를 장악함으로써 경제력을 극대화하겠다는 21세기형 경제구조로의 전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인식의 개선

이미 오래전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1970년대 한국의 주요 외화획득원 가운데 하나로 키펀치(Key Punch) 비지니스라는 것이 있었다. 아직도 사업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XX전산이니, XX정보처리라고 하는 등등의 업종이 바로 그것의 전산인데 이는 일찌기 미국의 데이터베이스구축이 하나의 기간산업 같은 형태로 투자되어지던 시절의 노동집약적 외화 수입의 하나였다.

즉 방대한 양의 문건, 판례집이나 법령집 기타 서류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여러 사람이 손쉽게 활용하도록 하는 투자의 일환으로 요즘으로 말하자면 입력 작업을 추진하는데 양질의 고급인력을 보유한 동남아시아 각국에 자료 입력 대행을 의뢰한 것이 그 사업의 내용이다. 한국은 이미 '70년대에 정보화와 관련된 산업이 호황업종의 하나로 부각되며 부를 축적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었는데 애석하게도 그 일의 내용이 다른 나라의 정보화를 가속화하는 촉진 작용을 했을 뿐 우리나라의 정보산업의 발전에는 그다지 큰 기여를 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당시 미국의 기업이나 기관 등에서는 마치 중국의 고사성어에서 말하는 큰 산을 옮겨 놓으려는 한 노인의 헛되 보이지만 깊은 뜻을 담고 있다는 "우공이산"의 이야기와도 같은 장기적인 안목의 노력을 했던 것이다. 그 결과 미국은 세계에서 제일 많은 수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어 일본의 3배 우리나라의 20배 이상 규모의 수적

우위를 보이고 있다. 질적인 측면까지 비교한다면 아마도 그 격차는 조금 더 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각 분야에서는 기업은 물론 정부 각 기관에서도 업무수행의 결과로 축적하게 된 각종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노력이 매우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최근 대두되기 시작한 멀티미디어 붐은 그 데이터베이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인간이 사회생활을 해나가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행위 가운데 하나가 의사소통(Communication) 행위이다. 그 커뮤니케이션을 더욱더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하는 것을 우리는 미디어(Media)라고 부른다. 이제까지 인류는 문명과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등장한 수많은 미디어를 경험하였다. 즉 종이, 책, 잡지, 녹음테이프, 필름, 비디오, 전파방송, 무선통신 수단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다양한 형태의 뉴미디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있는 반면 베타방식의 비디오테이프와 같이 몇년도 버티지 못한 경우 등 종류는 참으로 다양하다. 그런데 20세기 막바지에 그리고 꿈과 희망으로 상상하는 21세기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우리는 컴퓨터통신이라는 또 다른 뉴미디어를 소개 받았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심상치 않다. 컴퓨터산업으로부터 축적된 멀티미디어 기술을 바탕으로 깔고 초고속정보통신망이라는 새로운 환경이 바로 데이터베이스의 진가를 한층 더 높여 주는 배경이 되고 있는 지도 모르겠다. 이제 바야흐로 뉴미디어의 시대가 전개되는데 그 시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어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보다 집중적인 투자가 절실히 지는 것이다.

지난해 어느 책에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들의 몫이라는 글귀가 있었던 기억이 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한 국내의 대기업이 변혁을 경험하기도 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조직 가운데 가장 보수적인 조직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일간 신문사가 지난 한해 변화의 몸부림을 시도한 것은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었고 그 변화는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 또한 1994년 말 건국 이래 가장 혁신적이라고 일컬어지는 정부조직의 개편을 단행하였다. 우리 사회의 모든 부분에서 변화의 흐름에 대처하고 개혁을 통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필자가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관련부문의 정책을 지켜 보면서 느끼는 것은 바로 규제의 과감한 철폐가 이루어져야 개방이 본질적으로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으나 많은 경우 규제의 강화가 정책의 핵심이 되어 본말이 전도되는 경우가 너무 빈번하다는 것이다. 일본이 ITU내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이면에는 업계의 최신 정보를 정부에서 잘 활용하여 국내정책은 물론 외교정책에까지 반영하는 선례로 볼 수 있다. 올랜도 선언으로 결론지어지는 미국의 정보통신사업의 추진 즉 디지털 혁명은 정부와 기업의 절묘한 팀플레이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부상하기 위한 사회 각 부문이 균형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분야의 선진화를 위해서 대외적으로는 과감하고도 혁신적인 개방을 하고 국내적으로는 규제를 완전히 풀어 버리는 과감성을 바탕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DPC